

하이(Hi) Teen 공부합시다

‘공판 중심주의’란 무엇인가요?

# ‘검찰 조서’보다 ‘법정 진술’을 중시하는 것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변호사 비하성 발언’ 파문 이후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주의가 법조계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공판중심주의가 뭐기에 연일 법조계가 떠들썩한 지 알아봅시다.



대법원이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주의를 활성화시키면서 법조계가 큰 변화를 맞고 있다. 대법원의 이 같은 재판 활성화 방침에 따라 광주고등법원이 시범적으로 설치한 소(小)법정. /위탁기자 jrwi@kwangju.co.kr

## 1 공판중심주의란

공판중심주의는 검찰 수사기록 등 서면을 위주로 하던 관행을 벗어나 법정에서 법관이 당사들의 진술을 직접 듣고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피의자에게 ‘검찰 밀실’이 아닌 ‘공개 법정’에서 최대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동시에 관사도 검찰 조서가 아닌 원고와 피고, 또는 검찰과 피고인(변호사)의 법정 공방을 듣고 유·무죄를 정하게 한다는 게 이들 제도의 취지입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 : 법관이 재판에 선입관 없이 일하도록 하기 위해 검사는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가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 원칙이 확립돼 있지만 실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 공판중심주의의 기본원칙

기본원칙	내용
공개주의	일반 국민에게 심판의 방향이 허용되어야 한다.
구두변론주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판결은 구두변론에 의거해야 한다.
직접주의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계속심리주의(집중심리주의)	심리에 2일을 요하는 사건은 연일 계속해서 심리해야 한다.
공소상일본(一本)주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소정(訴狀)에 사건에 관해 법관이 미리 짐작할 수 있는 서류 및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관이 백지 상태로 공판에 임하여 직접 공판에서 심증을 형성해야 한다.

문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재판부는 백지 상태에서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만으로 뇌물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금을 떼인 세입자 A씨는 전세금 반환 민사소송을 내면서 검찰에 형사고소까지 했습니다. 집주인이 재산을 빼돌리고 전세금을 주지 않는 것인지, 혹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집주인이 다른 곳에서도 사기 친 전과가 있는지 등을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모두 조사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A씨는 형사고소를 병행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검찰은 수사기록을 민사재판 증거용으로 내놓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신 A씨 변호사들이 집주인 뒷조사를 직접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2 법조계 논란, 왜?

공판중심주의는 재판의 주도권 다툼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과 검찰, 변호사 단체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놓고 치열한 물밑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공판중심주의 이면에는 최종 판단의 주체인 법원이 처음부터 다시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변호사 단체가 ‘법원 중심주의’라고 비판하기는 것도 이 이유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역할함과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줄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여기에 검찰과 변호사 단체도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방어권을 보장하지는 대의명분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내심 수사권 약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전달돼 계좌추적이 불가능한 뇌물 사건과 같이 당사자들의 자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은 아예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 法·檢·辯 ‘사법권력’ 주도권 다툼 치열 예상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 재판 장기화 우려도

### 3 재판, 어떻게 달라지나

법정에서 공판중심주의가 활성화되면 ‘예’ 또는 ‘아니오’로 일관된 일사천리식 재판이 앞으로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보다 배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변호사들 역시 뛰어난 변론 능력을 바탕으로 ‘설전’에 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피고인을 첫 대면하기 전에 사건의 윤곽을 대부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무죄에 대한 판단까지도 가능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뿐만 아니라 피고인, 참고인, 증인 등을 조사한 자세한 수사기록을 미리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검찰이 A4용지 1~2매 분량의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수사기

록중 증거능력이 인정돼 증거채택된 증거서류만을 법정에 제출하는 증거분리제출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백지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내용을 듣고, 증인과 참고인 등을 차례로 불러 검찰의 공소사실이 얼마나 맞는지 살피게 됩니다.

### 4 달라질 법정 풍경

#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씨는 물론 B씨에게 뇌물을 준 B씨, C씨의 차명계좌에 이용된 D씨 등 수십명을 법정에 불러야 합니다.

과거에는 검찰이 피고인 A씨를 비롯한 참고인, 증인 등을 조사한 수사기록을 제출, 사건 파악이 오히려 쉬웠습니다. 다만, 수사기록에 따라 유·무죄에 대한 판단까지 가능했다는 점이

### 5 부작용은 없나

일단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수사기록에 의존하던 판사들도 일일이 증인을 부르고 법정에서 증거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 수사기록이 배제된 법정에서의 위증 여부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강화를 위한 사법개혁의 도입에 부정적이던 법원에서도 위증 대책 마련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수사기록 없이 재판부가 민사재판에서 제대로 된 증거를 얻어나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건입니다.

여기에 공판중심주의 시범 실시만으로 심리 시간이 2배 이상 늘었다고 하소연해온 법원의 업무량 폭증도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이 길어지면 검찰도 인력난이 예상됩니다. <특별취재팀>

### ■ 법조 3론 업무변화는?

法 투명한 재판·예산·인력난 우려  
檢 수사권 약화·‘유전무죄’ 부추겨  
辯 방어권 약화·직접 발로 뛰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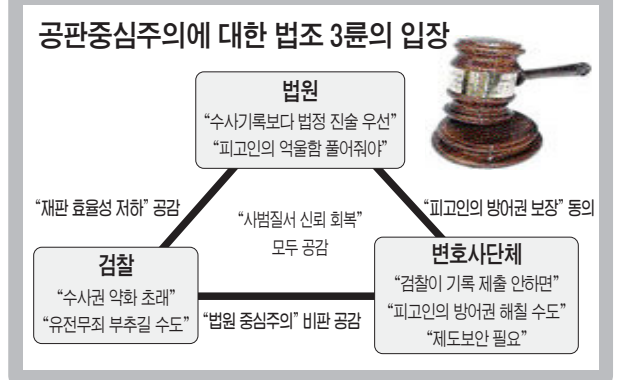
◇법원 = 판사들은 앞으로 서면과 수사기록을 토대로 비교적 쉽게 판결을 내려왔던 관행을 포기해야 한다. 대신 피고인과 증인의 직접 진술을 듣고 사건 실체와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 이 때문에 증인과 검찰, 변호인의 상호 공방을 이끌어내고 판사 본인도 신문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등 재판에 대한 부담도 대폭 늘어날게 된다.

법정에서 피고인과 다수 증인 등의 진술에 의존하게 되면 판사들은 당사 사실 관계나 위증 여부부터 가려내야 하나 이것이 쉽지 않다.

공판중심주의 시범 실시만으로 심리 시간이 2배 이상 늘었다는 현장 판사들의 하소연을 감안하면 법원의 인력난 역시 심각해질 전망이다.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한데 이를 현재의 2천여명의 법관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에도 대다수 판사는 공개된 법정에서 모든 심리 절차와 유·무죄 판단이 이뤄 지는 등 투명한 재판 진행으로 법정 권위를 세울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검찰 = 증거분리제도 확대 등 공판중심주의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나선 검찰로서도 수사 관행의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검사들은 수사를 통해 재판부에 넘길 증거서류와 조서 등을 작성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 왔지만, 앞으로는 법정 내 다툼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보다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중시되면서 피고인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반복하거나 부인할 경우 다시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찾아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그러나 민사소송에 이용되는 형사 사건 기록을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적으로 반기는 분위기가.

◇변호사 = 형사사건에서의 공판중심주의, 민사사건에서의 구술주의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변호사들의 부담이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민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의 경우 소송의 주요 쟁점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거의 전적으로 검찰의 형사사건 조사 기록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검찰이 공판중심주의 및 구술주의를 정면돌파하기 위해 민사소송 당사자가 검찰 수사기록을 요청하더라도 수사 비밀과 관련 없는 제한된 서류만을 선별해 제공키로 함에 따라 변호사들은 직접 발로 뛰어 사건 조사에 나서야 한다.

이에 따라 변호사 기본 수임료가 인상될 수도 있다. 민사 재판에서 변호사들의 실력 차이가 분명해지면서 수임료 역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취재팀>

하이(Hi) Teen 공부합시다

공판중심주의란 모든 소송 자료들 공판에 집중하여 공판에서 연일 증거만으로 재판하는 주의

가정의 건강을 위한  
**세심함 속에는 신우 환기유니트**  
Airpass 있습니다

신우환기유니트

신우환기유니트

신우환기유니트

2007년 대학 수시입학생을 위한  
**중국어 초단기 완성 프로젝트**

"합격으로 끝이 아닌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  
중국어 입문부터 125회대까지 5개월 집중완성!"

합격보 커리큘럼 + 100%입학준비반

수업	월 1회	월 1회	월 1회
시간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장소	신우환기유니트	신우환기유니트	신우환기유니트
비	400,000원	400,000원	400,000원
문의	02-233-9582	02-233-9582	02-233-9582

중국어 특강학교  
**리틀자이나 中国語学院**

233-9582